양하라. 우리는 별도의 낭중공 종회를 새로이 구성해서라도 봉제사와 수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용의가 있다.

1. 조선 숙종조의 하계공霞溪公 유愈와 정조조의 학림공鶴林公 방訪의 탐심에서부터 비롯되고 80여년 전 1930년대에 남북한 전국의 권씨후손이 헌성하여 이룬 청도의 낭중공 유허와 단소를 훼철하고, 폐교를 구입해 들어온 기업체 연수원의 주차장과 부대시설의 확충을 위해 우리 아시조의 위토와 봉암재사 및 유허비각의 부지를 뒷거래로 매각하려는 책동을 중지하지 않는 한, 조상의 성역을 밀매하는 이들 주역에게 반드시 천주天誅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1. 이 결의문을 접하는 모든 안동권씨인 낭중공의 후손은 이 취지를 십분 요해하고 현재 대종회와 중앙종친회 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무도한 세력의 타도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며, 우리는 이들 새로운 대안 동력으로서의 문중 민심에 구심점을 형성하는 단초가 되어 저들에 대항할 강력한 실체기구의 탄생을 전도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9년 4월 10일
안동권씨기로회

다음은 안동권씨근기요산회 近畿樂山會에서 4월 18일자로 공표한 ‘ 아시조 낭중공 단소 수호 결의문 ’의 전문이다.

우리는 안동권씨대종회와 중앙종친회에서 경북 청도의 정상리와 봉하리에 있는 100만 권성인의 2세조 낭중공의 제단祭壇과 재사 및 비각 등 유적을 철거하고 일부 석물만 안동의 시조묘소하 보판각 밑 재사 곁의 경작전에 이전하려는 망동을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종회 70여 임원 소수와 중앙종친회 집행부를 재외한 100만 권성인의 99%가 이같은 이단설을 패륜적 만행으로 여기면서도 독선적인 대종회와 중앙종친회의 압력에 눌려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침묵의 다수를 일깨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 청도의 유허와 단소가 원거리이고 오르내리기 싫어 봉제사와 수호가 싫다면 이를 철거하지 말고 인접한 후손종회에 역할을 이양하고 별도의 낭중공종회를 구성케 하라.

3. 숙종조 하계공霞溪公과 정조조 학림공鶴林公의 탐사에서 비롯되고 1930년대에 전국의 권씨가 헌성하여 이룬 유허와 단소를 철거하고 기업체 연수원의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려는 책동을 중지하라.

4. 한말 경주의 운곡서원이 불국사와 통도사 승려단에 탈취되던 두 차례 수난에서 선대가 형장에도 굴하지 않고 지켜낸 일을 본받아 우리는 신명을 바쳐 아시조의 3백년 유서어린 유적과 단소를 사수키로 한다.

5. 대종회와 중앙종친회의 이단추진세력도 정녕 낭중공의 성손이라면 그 모금하는 재정으로 먼저 정상리 세칭 권릉權陵의 지표조사地表調査와 필요하다면 발굴조사 등 학술조사를 먼저 추진하고 퇴락하는 봉암재사鳳巖齋舍부터 수리하라.

2009년 4월 18일
안동권씨근기요산회원일동

다음은 4월 23일자로 안동권씨 추밀공파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파종회에서 공표한 ‘ 2세조 낭중공 유적 수호 결의문 ’의 내용이다.

경북 청도 정상리와 봉하리의 우리 2세조 낭중공의 단소와 유적을 훼철하고 비석만 뽑아 옮기려는 망동에 분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규탄、결의한다.

1. 청도의 낭중공 유허와 단소가 대종회와 중앙회에서 원거리이고 올라다니기 귀찮아 봉제사와 수호가 힘들다면 이를 인접지역의 후손종회에 집사를 이양하여 별도 낭중공종회를 구성케 하라. 자고로 조상은 가까운 데 사는 자손이 섬긴다 했다.

2. 지금 대종회의 소수 임원과 중앙회 집행부를 제외한 백만 안동권씨인의 9할 이상이 낭중공 이단설의 연유를 모르며 어이가 없어해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무언의 다수와 함께 궐기할 것을 다짐한다.

3. 하계공霞溪公 유愈、정간공靖簡公 혁爀、학림공鶴林公 방訪、이재상공彛齋相公 돈인敦仁、수정공遂庭公 익상益相 등 선대가 탐심하고 80년전 전국의 성손이 헌성하여 이룬 유허와 단소를 허물고 기업 연수원의 주차장과 부대시설에 매각하려는 뒷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공경으로 조상을 받드는 평상심을 각성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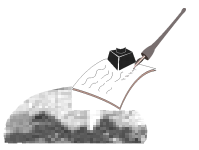
4. 구한말 경주 시조 태사공의 운곡서원을 통도사와 불국사 승도에게 탈취당할 위기에서 이를 형장에 맞서 지켜낸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며 우리도 신명을 걸고 낭중공 유적을 사수할 것을 선언한다.

2009년 4월 23일
안동권씨화산부원군종회 회장 권진택權晋澤 외 임원일동

<權五焄>

능동칼럼

덕은 외롭지 않다.



權 琪 奉 주간

논어論語에 공자가 ‘ 덕불고 필유린德不孤必有隣 :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 하였다. 덕은 제 마음을 닦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에게 베풀어질 때 더 빛난다. 그래서 공자는 덕이 고립된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 감화시키는 데 있다 했는지 모른다.

우주나 자연, 인간 사회도 다 개체 하나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남이 있어야 내가 있고 또 주는 이가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덕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한 것이다.

5월 2일은 석가탄일,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입양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18일은 성년의 날이자 민주화기념일, 19일은 발명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25일은 방재의 날, 28일은 단오절端午節,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이렇게 많은 ‘ 날 ’이 있는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가정의 달이야말로 우리 모두 사랑과 인덕과 자비를 절감할 때가 아니겠는가.

공자는 또 ‘ 하늘에 순종하는 자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 죽는다(순천자존順天者存, 역천자망逆天者亡) ’ 하였다.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 즉 천명天命에 따르는 것이 순천이고 악과 불의를 행하는 것을 천명에 거역하는 역천으로 정의한 것이다. 예수가 또한 ‘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 하였다. 주여주여 하는 자가 신앙의 필요조건이라면 하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신앙 성장의 충분조건일 것이다. 또한 신앙은 예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넘어 순종을 의미한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하늘의 대리인이고 직장에서는 사장이,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그러한 사람이다. 오늘날 국가로부터 사회 각계와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 윤리와 법도가 무너져 뒤죽박죽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개탄하며 부정적으로 방관만 해서야 되겠는가. 녹음방초綠陰芳草가 우거지는 성하의 5월 달력에 경사스런 날이 10여개나 나열되어 있다. 이 좋은 날이 다 달력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같은 날에 서린 애환을 나눔에 함께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길이요 진리요 사랑의 덕목일 것이다.

지령 10년의 우리 능동춘추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교 중반에 해당하므로 어린이의 모습으로 5월 5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같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것 또한 스스로 가늠해야 될 일일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 나를 비판할 자도 춘추요 나를 알아줄 자도 춘추라 ’ 하였다. 우리 능동춘추를 알아줄 자도 춘추요 비판할 자도 춘추일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 덕불고 ’의 신념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웃이 있을 것이다.

永嘉言行錄에 앞서 나왔어야할 영가언행록과 쌍벽을 이루는 千年安東權氏의 編年體姓氏史

安東權氏
太師公實記

4·6배판 1630면에 집성된 시조태사공의 득성이전 김알지 大輔公이래 천년과 득성이후 천년의 榮辱과 곡절이 어린 안동권씨 姓族의 大河實錄!
文獻世鑑·太師權公實記·陵洞誌·陵洞實記·陵洞千年略史 등 안동권씨대종중에 5백년 동안 축적돼온 古文漢字 만리장편敍事의 완벽한 국역주해와 원문조판병재!
원색사진판 96면, 원고지 1만여장 분량으로 책자의 수명 1백년을 내다보고 제작한 최고급 寶藏本.

저자 – 權五焄
저작권자 – 安東權氏太師公實記編纂委員會
보급처 – 安東權氏宗報社
상·하 2권 값 15만원
六禮이야기[48,000원] 별책 사은품 증정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110-044
전화 02)723-4480·732-9139